

치아 노화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구두를 오래 신으면 굽이 닳아 버리듯 치아도 오래 사용하면 마모되기 마련이다.

물론 마모의 정도는 평소 식습관이나 관리방법에 따라 조금씩 개인차가 있는데 만일 치아 표면이 심하게 닳았거나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동반된다면 치과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치아가 노화되면 우리 인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노화증상으로는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근(뿌리)이 노출되는 경우, 치아와 치아 사이가 뜨거나 벌어지는 경우, 치아가 심하게 마모되어 저작기능을 상실하는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심한 경우 치아를 상실하기도 하는데 치아가 없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위장기

능 저하로 영양불균형을 초래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치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틀니를 사용하고 있거나 틀니를 필요로 하고 있고, 8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는 치아가 거의 없는 무치악 상태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치악 상태의 환자 대부분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임플란트 대신 일반 틀니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본원에서는 환자의 구강상태 및 니즈에 따라 전체틀니 또는 몇 개 남은 치아를 이용한 부분틀니,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이를 유지 장치로 이용하는 임플란트 틀니를 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방법은 결국 낳다 뺐다 하는 착탈식의 틀니 치료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다보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 되고,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충분한 잇몸뼈, 그리고 이러한 수술을 견뎌낼 수 있는 건강상태만 뒷받침된다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이브리드 임플란트’가 대표적인 시술방법으로 윗니에 5~7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아래쪽에는 4~6개의 임플란트를 심은 후 이를 이용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시켜주는 것으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덜해 노년층 환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이 치료법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 치아와 거의 흡사한 저작력과 심미적인 효과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고,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면서 심미적으로도 기존 틀니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점이다. 단, 이렇게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하려면 임플란트가 필요한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 시술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 전 CT 촬영과 더불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밀 가이드 시술법이 병행되어야만 보다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다.

아울러 임플란트 시술은 의사의 풍부한 임상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임플란트 전문병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치과전문에게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민윤신치과 원장



NH농협은행, 거래 외국계은행과 농촌 일손돕기

NH농협은행은 6일 코레스은행 임직원을 초청해 경기도 가평 아홉마지기 마을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협은행과 외환송금 및 신용공여한도 제공 등의 협력을 하고 있는 HSBC, CITI 등 국내 소재 15개 코레스은행 임직원이 참가해 사과를 수확하고 선별작업을 펼쳤다.

/NH농협은행



제주항공, 동방신기에 명예사원증 수여

제주항공이 자사 모델 ‘동방신기’에게 명예사원증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지난 5일 회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직원들을 칭찬하는 ‘뉴 스탠더드 데이’ 사내 행사에 참석해 명예사원증을 받았다. 두 사람은 모델로서의 역할과 함께 제주항공 고객경험 개선TF(테스크포스) 팀원으로 소속돼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하게 됐다.

/제주항공



(왼쪽 세번째)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왼쪽 일곱번째)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왼쪽 여덟번째)문창용 캠프 사장, (왼쪽 아홉번째)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오른쪽 두번째) 김민호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공공기관 간 협업모델 확산으로 일자리 창출

예탁원,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토론회

한국예탁결제원은 6일 오전 11시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프마루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등 부산지역 7개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8개 공공기관이 공동 조성한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 성과 발표와 공공기관의 고유 사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성

과 공유’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이목희 부위원장 등 일자리위원회 관계자와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사회적기업이 의견을 제시하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

위원장은 “부산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간 협업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수렴해 중앙정부에서 정책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벤처·창업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IR 지원’ 역시 더욱 많은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CJ제일제당, 이달 한 달 ‘봉사주간’ 운영

CJ제일제당이 11월 한 달간을 집중 ‘봉사주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봉사주간’은 업무에 바쁜 임직원에게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업의 특성을 살린 봉사 프로그램 찬찬한 프로젝트에 참가한 CJ제일제당 임직원들이 미혼한부모 가정에 전달할 반찬을 만들고 있다.

/CJ제일제당



동원F&B, ‘고객중심 경영혁신 컨퍼런스’ 우수사례로 발표

동원F&B가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최의 ‘고객중심 경영혁신 컨퍼런스’에서 국내 우수 기업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세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동원F&B는 최근 4차산업혁명과 마켓4.0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참치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동원F&B가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운영한 동원참치 팝업스토어.

/동원F&B

SKT 브랜드 캠페인 ‘대한민국광고대상’

씨유투모로우·소방관·경찰관 편

SK텔레콤 기업브랜드 캠페인(‘SEE YOU TOMORROW’)이 2018년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했다.

SK텔레콤은 한국광고총연합회 주최 ‘2018 대한민국광고대상’ 방송광고 부문에서 기업브랜드 캠페인 ‘씨유투모로우’·‘소방관’·‘경찰관’ 편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광고대상은 1981년 시작된 한국방송광고대상의 후신으로 권위의 광고상이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노력하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는 ‘미래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SK텔레콤은 ‘5G, IoT 등 SK텔레콤의 기술은 가장 가치있는 일에 쓰여야 한다’



SK텔레콤기업 캠페인 ‘씨유투모로우’.

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인사

- ◆ 위키리크스한국 편집국 △미래산업부장/부국장 노진우 △금융팀장 김호성
- ◆ 안랩 △서비스사업부장 임영선

부음

- ▲ 김선용씨 별세, 박달화(경인방송 미래전략실장)씨 장인상 = 5일,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8일 오전. 010-4334-5580

- ▲ 문동갑 씨 별세, 석주(신아일보 전북 익산주재부장)·송주·현주·광주·숙자·경숙 씨 부친상 = 6일 오전 6시,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층 204호 VIP룸, 발인 8일 오전 8시. 063-855-1734, 010-3672-6628



NH농협생명, 가을철 농촌 일손돕기 진행

NH농협생명은 지난 1일 충청남도 예산군 상가리에서 가을철 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김희석 NH농협생명 자산운용총괄부사장(가운데줄 오른쪽 네번째)이 임직원 40여명과 함께 충남 상가리 마을을 찾아 감 수확 작업을 마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NH농협생명